

제42회관광의날 기념식



이태섭 부산시관광협회장
 짜우 원빈 가오슝시 관광협회
 부이사장은 양 도시간
 관광산업진흥과 해외관광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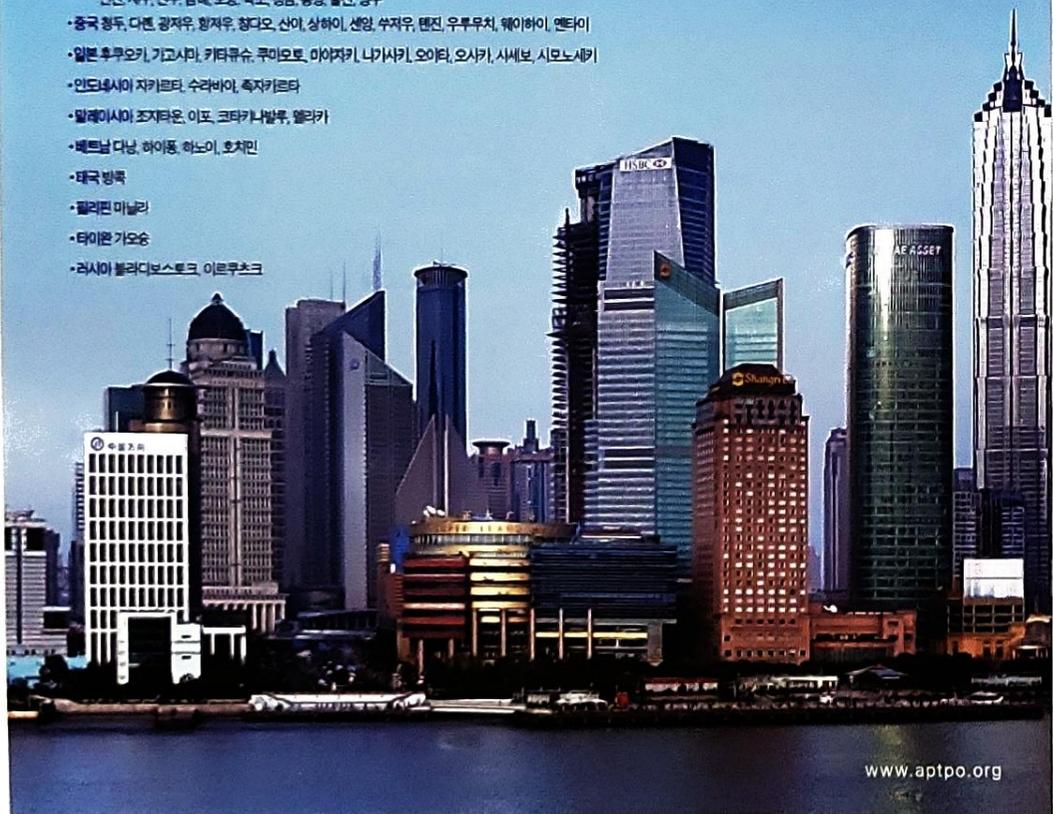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연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함안, 순천, 대구, 대전, 동해, 김해,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광둥, 다롄, 광저우, 황저우, 창더오, 산이, 상하이, 셴양, 우저우, 뎬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사마, 카타쿠슈, 쿠미오모,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시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자타운, 이포, 코타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산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찬 관광도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후대에 전해 줄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관광회관 건립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

총 기금 적립액 (2015년 11월말 기준) ₩221,01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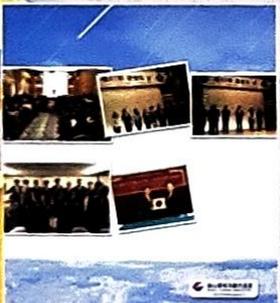
2013년도 기금 적립내역		2015년도 기금 적립내역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1억원	이사	김성해(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200만원
부회장	신도억(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이사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1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500만원	회원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100만원
이사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20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100만원
회원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200만원	회원	이수태·이광신(앤소핑 대표) 10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200만원	협회 사업수입 기금(이자포함)	₩69,610,626
회원	이수태(앤소핑 대표) 200만원	2015년도 기금 적립내역	
회원	이기형(티플러스 대표) 100만원	사무국 직원 일동	100만원
2014년도 기금 적립내역		회원	정진수(팬더투어 대표) 10만원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500만원	이사	이봉순(리컨벤션 대표) 100만원
부회장	신도억(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회원	장일종(아크투어 대표) 3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200만원	회원	김정연(관광호텔 42번가 대표) 30만원
부회장	김해룡(부산해상관광 대표) 200만원	이사	문영훈(미동암스정 대표) 50만원
부회장	강준구(진성관광여행사 대표) 100만원	이사	김영재(VIP국제여행 대표) 50만원
부회장	장순복(대륙항공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성우(한남해외여행사 대표) 200만원
부회장	서학영(동방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기형(티플러스 대표) 100만원

부산관광을 선도하는 강한 협회를 만드는데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협회 발행 각종 간행물과 회관 건립 초석에 담겨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회관건립기금 조성 계좌-

부산은행 101-2024-4232-05 예금주 : 부산관광협회
(입금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손비처리용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선, 이명규, 김종규, 이해원, 김병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우용 기자)
발행일 2015년 11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10 석천빌딩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t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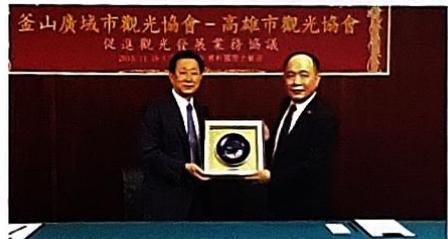


표지 제42회 관광의날 기념식

- 05 부산-후쿠오카, 가오슝 공동 관광설명회
- 06 관광선진국 도약,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
- 08 부산시관광협회 제42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
- 10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벅스코(BEXCO) 창립 20주년
- 11 '원-아시아페스티벌' 초대형 한류축제 개최
- 12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 13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해수부 북항부지 무상임대 결정
- 14 김해공항 3~5년 안에 완전 모화 상태 맞게 될 것
- 15 김해공항 출발지연 폭증, 승객불편 갈수록 커져
- 16 '120바로콜센터' 외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 17 조선통신사 평화의 길 따라 한·일 재즈명 교류전 개최
- 18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크루즈 모항 선석마련
- 19 해외여행 떠날 땐 가법계 챙기세요
- 20 하늘에는 불꽃, 땅에는 그리움
- 21 부산 찾은 외국인 관광객, 전년동기보다 14% 줄어
- 22 분주한 삶, 심표를 잠시 내려 놓고 길위에 선다
- 24 부산 '신민디로' 떠나는 시간여행 많은 관광객 참여
- 25 감천문화마을 빈집 리모델링에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되살려
- 26 '해안일주도로·등서고개로' 달리는 직통버스 등 6개 노선 신설
- 27 부산의 누리길 끊기지 않게 연결
- 28 대청동 옛 한국은행 건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원형 보존해 활용
- 29 서면 복개전, 콘크리트 복개도로 뜯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 30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비치 국제 아이스링크장' 조성
- 31 낙동강 하구 찾아온 철새들
- 32 부산 동신로 167곳 내년 5월까지 폐쇄
- 33 영일동백 무공해 식품, 매생이국
- 34 호텔가소식
- 36 부산의 전통문화체험관광
- 38 경북 달성 풍광 다 누리 1박2일 힐링여행
- 40 부산에서 직항으로 떠나는 시인 기보냈네요
- 42 누리마루 범선 부산항 이경크루즈 징기스칸
- 43 부산 세계인 사랑받는 문화·관광도시로

부산-후쿠오카, 가오슝 공동 관광설명회

부산시 관광협회·가오슝시 관광협회 양도시간 관광진흥, 해외관광 활성화 협력 협약체결



부산시와 부산시관광협회는 자매도시이자 자매 협회인 일본 후쿠오카시와후쿠오카관광컨벤션뷰로와 함께 중국, 일본에 이어 중요한 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시장 공략에 나섰다.

부산시와 관광협회는 지난 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산·후쿠오카 공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후쿠오카를 하나의 광역 관광권으로 묶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부산·후쿠오카 아시아 게이트웨이' 사업의 일환이다. 부산시 홍보단은 전용성 정 무역별보좌관을 단장으로 부산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을 비롯한 시·관광협회·업계 대표 등 12명으로 꾸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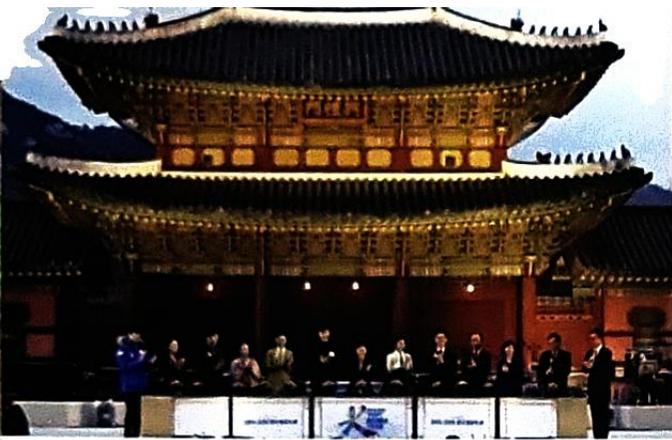
19일 열린 공동 관광설명회에는 가오슝시 주요 여행사 및 언론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부산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의 주요 관광지 및 축제와 행사 등 관광자원을 소개하였다. 특히, 2016년 10

월에 열리는 'One Asia Festival'을 집중 소개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광상품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이에 앞서 부산시와 후쿠오카시는 대만 최대 여행사인 '라이온트래블'을 방문해 관광상품 개발과 고객을 독려하는 한편, 가오슝시 부시장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였다.

또 부산관광협회 단독 행사도 실시되었다. 지난 18일, 가오슝시여행업협회 이사장 등 가오슝 여행업계 임원단을 초청해 부산관광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시관광협회(회장 이태섭)와 가오슝시관광협회(부이사장 저우 윈 빈)는 양 도시 관광산업진흥과 해외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오슝시는 대만 최고의 해양항만도시이자 제2의 도시로, 부산시가 26개 자매도시 중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등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부산과는 주 5회 직항(해여부산)이 운항하고 있다.

부산시와 관광협회는 이번 설명회가 부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오슝-부산-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공동상품 개발을 후쿠오카시에 제안하는 등 중화권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은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우리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가 평창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의 대도약을 이뤄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효과적인 협업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광선진국 도약,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까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졌다. 한국 관광산업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이 최근 경복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성규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각 지자체장, 주한 각국대사, 관광업계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선포식을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미소와 친절로 외국 관광객을 맞이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북가랜드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자는 '미소 국가대표 선서식'과 세계 각국 참가자들의 K팝 커버댄스 공연 등이 열렸다. 정부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K팝 행사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광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범국민 친절 문화운동인 '케이 스마일 캠페인' 등을 통해 한국의 친절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방문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친절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친절한 대한민국,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만들것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은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우리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가 평창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의 대도약을 이뤄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효과적인 협업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000년을 이어온 우리의 정신문화, 계절마다 표정을 바꾸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모습,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광 잠재력은 무한하다"면서 "이러한 독특한 관광자원에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스토리를 더해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미소와 친절의 따뜻한 정(情) 문화를 더해 나간다면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은 선포문을 통해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세계인을 맞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방문위원회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엠블럼과 'K스마일 캠페인'의 엠블럼 및 슬로건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

방문의 해 엠블럼은 지난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엠블럼을 통해 구축된 캠페인 인지도를 활용하는 한편 이미지 단순화를 통해 캠페인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한국을 상징하는 'K'는 한국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지닌 리본 묶음 형태로 형상화했다. 위원회는 K팝 페스티벌, K트래블버스 등 위원회의 주요사업에 'K' 엠블럼을 활용할 예정이다.

'K스마일 캠페인'의 로고와 함께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도 공개했다. K스마일 캠페인은 우리의 친절과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친절 캠페인으로, 숙박·교통·음식·쇼핑 등 관광접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육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현대의식을 고양하고 범국민적인 친절문화를 정착시켜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개된다.

위원회는 선포식 행사와 연계한 가운데 'K스마일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일제히 알리고 한국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웨이보 등 SNS를 통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인이 다시 찾는 코리아'라는 비전 갖고 주요 사업 추진

한국방문위원회는 선포식을 계기로 '세계인이 다시 찾는 코리아'라는 비전 아래 특별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을 통한 개별관광객 유치 증대, 방문서비스 개선을 통한 외래객 재방문 유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를 통한 지역관광 업그레이드, 민간참여 및 민관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관광캠페인 전개를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스마트투어리즘(SMART ourism)'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투어리즘(SMART ourism)은 범국민 친절캠페인인 K스마일 캠페인과 잊지 못할 감동을 줄 특별 인센티브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프로모션,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하고 신나는 문화이벤트 및 K투어카드 등 한국여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 줄 여행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류스타 이민호와 걸그룹 AOA의 실현이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택시기사, 식당종사자, 철도공무원, 관광경찰 등 관광산업 최일선에서 뛰는 미소국가대표 10명의 친절 다짐 선서와 무궁화 등 '웃음꽃'(LED꽃)을 활용한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선포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공식행사 이후에는 나이지리아, 중국, 폴란드, 호주 등 12개 국가를 대표하는 K팝 페스티벌 참가팀의 공연과 함께 '한국방문의 해 특집, 열린 음악회'가 열렸다.

bjbusan@hanmail.net



부산시관광협회 제42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행사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한 해 동안 관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42회 관광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시내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이근후 명예회장 등 관련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태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제42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관광인들이 뜻깊은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업계의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사'와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악재를 만나 우리 관광업계는 전례없는 불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관광산업은 다른 그 어떤 산업보다 외부의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이를 고환상이 우리는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특하고 다양한 고부가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3국간의 적극적인 역내 관광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찬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프라와 훌륭한 관광컨텐츠를 갖고 있는 우리 부산이 희망찬 관광도시, 세계 제1의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서 나가시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오늘 우리 협회는 부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남달리 헌신해 오신 (주)한남해외여행사 이성우 대표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업계 임직원의 자녀 중에서 14명을 선발하여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사기진작과 함께 학업 열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과 장학금 수혜학생 여러분에게 우리협회 전체 회원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비쉴 틈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각계의 내빈과 관광객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기쁨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편집실



[28회 관광대상] (주)한남해외여행사 / 이성우 대표이사

'올해 관광대상을 수상한 (주)한남해외여행사 이성우 대표이사는 1944년 울산에서 출생, 동성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 1969년도에 해군중위로 예편했다. 1969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천경해운, 대한선주, 삼호선박 등에서 해무부장, 상무, 선장 등을 역임했으며, 또한 1988년도에 (주)한남해외여행사를 설립,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을 여행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왔다. 부산 동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과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 회장 및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89년부터 1996년까지는 부산출발 여행상품의 질적 향상과 여행사 권익증진을 위해 기획한 부산공동상품인 '피라다이스 투어'를 설립하고,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부산 여행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부산관광업계의 구심체인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 다년간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오직 한평생을 부산관광협회와 부산관광 발전을 위해 왔다.

[부산광역시 표창]

- 문중기 - (주)부산롯데호텔 시설팀 과장
- 김인주 - 호텔아쿠아펠리스 총지배인
- 이상봉 - 태평양관광투어(주) 상무이사
- 유상명 - 아이산 주방장
- 김옥재 - 대연정보고등학교 교사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감사패]

- 박창희 - 국제신문 대기자
- 강희천 - 영산대학교 교수
- 김성원 - 부산시방광청정 의사과 관광경찰대 순찰팀장
- 김강미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 주무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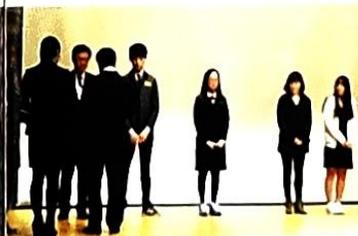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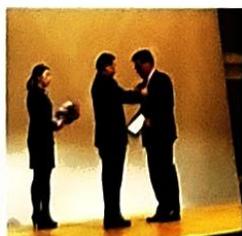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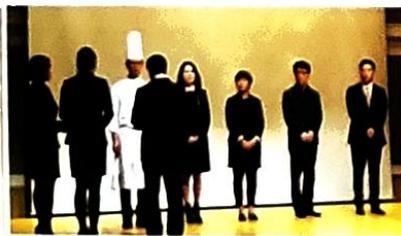
- 하동원 - (주)부산롯데호텔 식음팀 담당책임자
- 김 진 - (주)부산관광투어 국내영업부 부장
- 이갑상 - 골드드림투어(주) 전무이사
- 박미령 - (주)부산트래블 영업부 차장
- 김은경 - 롯데부산면세점 사원
- 이기형 - (주)티몰러스 총괄기획 CEO

[관광인 자녀 장학금 수상자]

- 김기민 - 선화여자중학교 3학년
- 서문규 - 동양중학교 2학년
- 권희주 - 주례여자고등학교 3학년
- 장현원 - 부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 김예림 -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 김유민 -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학년
- 민초이 - 부산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1학년
- 이지윤 - 동주대학교 항공운항과 2학년
- 전재한 - 동명대학교 자동차공학과 1학년
- 하디근 -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2학년
- 안소윤 -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 송미정 - 동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학년
- 이수근 -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 김규광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학부 4학년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 표창]

- 서승수 - (주)부산롯데호텔 조리팀 한식책임자
- 박민정 - 부산관광공사 아르바니 식음로팀 사원
- 김태란 - (주)천주국제관광 대표이사
- 안창기 - (주)세라고속관광 부장
- 김익돈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부산롯데점 영업팀 팀장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벅스코(BEXCO) 창립 20주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벅스코(BEXCO)가 오는 12월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1995년 12월 5일 설립돼 2005년 APEC정상회담,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올해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한 벅스코는 과거 마이스 산업의 불모지로 손꼽히던 부산에 성사시켰다.

지난해에는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1천 건이 넘는 전시회와 회의,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전시회의 경우 개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차체를 넘겼다. 학술회의와 각종 이벤트 개최 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형 국제회의와 각종 전시회 등을 유치할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다. 국내외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들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객실 부산에 머무르며 숙박과 관광, 쇼핑 등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가기 때문이다.

벅스코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각종 마이스 행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에만 생산유발효과 1조4천33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759억원, 소득 유발효과 3천232억 원 등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1년 동안 지

역 사회에서 지체 창출된 고용유발 인원만 해도 2만1천952명에 달했다.

생산유발효과를 행사 유형별로 세부화하면 전시회 8천304억 원, 회의 5천286억 원, 이벤트 7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57%가량 성장한 셈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벅스코는 지난해 연매출 303억 원, 회의 5천286억 원, 이벤트 74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57%가량 성장한 셈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벅스코는 지난해 연매출 303억 원, 당기순이익 15억 원 등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벅스코는 창립 20주년인 올해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전시장 가동률 50% 달성과 대한국제회의 90건 유치, 민간 PEO(전시기획사)·PCO(컨벤션기획사) 대상 인큐베이팅 사업 등 4건 지원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벅스코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건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양적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김무용 수석기자



'원-아시아페스티벌' 초대형 한류축제 개최

'문화도시' 명성을 드높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공연·이벤트·전시·체험·쇼핑·관광 등 프로그램 진행



부산이 내년10월 '초대형 한류축제'를 개최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원-아시아(One-Asia) 페스티벌'을 신설, 내년 10월1일부터 23일까지 해운대 벅스코 등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축제'를 표방하는 이 축제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류스타들의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1회성 한류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20일 이상 장기간 한류문화와 다양한 아시아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관광콘텐트다. 특히 '원-아시아페스티벌'은 국내외 한류스타들이 대거 몰리는 부산국제영화제(BIFF)부산꽃축제 등과 연계한 수준 높은 콘텐트를 제공,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축제로 우뚝 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한류문화를 창출하고 '대한민국=문화국가'라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동북아 관문인 부산에서 아시아 각국의 상호호혜적 문화교류를 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원-아시아'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드높이

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역시 아시아 대표 국제영화제와 세계적 규모 불꽃축제에 이어 초대형 한류축제를 개최하는 '문화도시' 명성을 드높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1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아시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역시 각종 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새로 생기는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이례적으로 국비 5억원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총 예산 100억원의 매머드급 축제, 국비 10억원과 시비 50억원, 민자 40억원을 들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류와 아시아 각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벤트·전시·체험·쇼핑·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류문화산업전은 한류스타들의 캐릭터와 애장품을 전시하는 '한류스타 체험관'과 K-푸드·K-뮤지·K-패션·사찰문화·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류문화체험전', 한국의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ICT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한류스타 팬 미팅, 팬 사인회, 신인 뮤지션 선발대회,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월드 이벤트는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대회를 민간 주체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한류관광객 15만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해 축제 기간을 중국 국경절(10월1~7일), 대만 국경일(10월10일)에 맞춰 정했다.

bi@usan@harmat.net



“Unity & Delight”
Christmas in Busan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올해 해방70년, 분단70년을 맞이하여 성탄의 메시지가 바다넘어 일본과의 화해를, 또한 북녘땅에도 흘러 넘쳐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하자는 의미를 담은 축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참여형 축제, 다양한 문화의 성탄축제가 11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37일간) 부산역·광복동거리 전역에서 펼쳐진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겨울 빛 축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 겨울, 부산역과 광복동거리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스트리가 있는 포토존, 37일 내내 펼쳐지는 문화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놀라운 콘텐트로 가득하다. 부산을 가장 가고 싶은 행복한 도시, 다시 오고 싶은 크리스마스 도시로 자리매김 할 이번 축제는 국내 최고의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중구 상업 지역에서 열리는 37일 간의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빛의 향연을 배경으로 볼거리·먹거리·즐거거리로 가득하여, 전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부산 중심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축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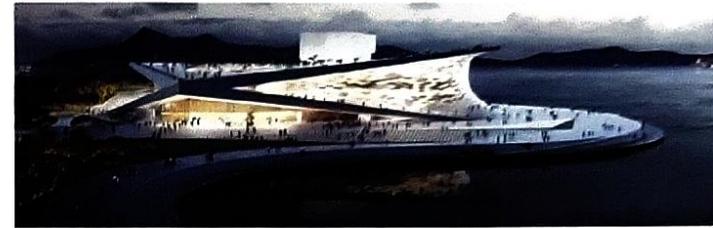
평화와 화해를 소망하는 축제!

해방70년, 분단70년을 보내고 새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축제로 겨울 부산 광복동에는 눈이 내린다. 초대형 트리 앞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시민문화 공연, 아름다운 포토존에서 사진도 찰칵, 소망 트리에 꿈을 적고, 비전의 날개를 달고 천사가 되므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나눔의 골목과 사랑의 프로젝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랑의 Relay Given Day 등 내가 주인이 되는 이번 축제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축제로 거듭나게 된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해수부 북항부지 무상임대 결정



해수부와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등이 최근 협의를 통해 북항재개발지역 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부지를 부산시에 무상임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사진은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북항재개발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산·경남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무상임대를 최종 결정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대지면적 2만9천542㎡, 연면적 3만9

천67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1천800석의 대극장과 전사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예정.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를 한껏 살려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디자인 국제공모를 통해 노르웨이 스노헤타(Snohetta) 사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 작품은 땅이 솟아 오를 것처럼 지붕과 땅이 연결돼 있는 형태로, 밖에서 자연스럽게 지붕으로 걸어 올라가 북항 경관을 조망하고 지붕에 설치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이 디자인에 따른 구체적인 실사설계를 내년 8월까지 마치고 2017년 2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비는 롯데그룹 기부금 1천억원을 비롯해 총 2천115억원이다.

해수부와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김해국제공항 개항 이래 미주노선 운항 개설

부산~미국 첫 직항 노선 뜬다. 12월 1일부터 주3회 왕복정기편

김해공항이 국제선 항공 수요 증가세에 따라 장거리 국제노선인 부산~로스앤젤레스를 잇는 직항노선에 국토교통부가 사업허가를 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 국적 항공사 내셔널에어라인에 김해~로스앤젤레스(LA) 노선 국제운송사업을 허가했다.

내셔널에어라인은 B757 항공기를 이용해 12월 1일부터 주 3회 왕복하는 정기편 항공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내 승무원을 대부분 한국인으로 운영하고 기내식을 국내 항공사처럼 한식 위주로 서비스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셔널에어라인 측은 한국총판을 운영할 업체를 'PWA'로 선정해 보안계획수립 심사 승인과 각종 세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해공항 측도 공항 슬롯 배정 문제 등 미주 직항노선 개통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김해공항에서 미주 직항노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개항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정식 취항을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 외에도 슬롯과 공항 보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0바로콜센터' 외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외국인 생활·관광정보 안내, 영·중·베트남어 등 6개국어 부산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 될 것

부산광역시 민원상담 창구인 '120바로콜센터'가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생활·관광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20바로콜센터는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산의 생활정보와 관광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외국어로 서비스한다.

외국어 상담 서비스 이용은 120바로콜센터(전화 120)로 전화를 걸면 ARS안내에 따라 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 등 총 6개 언어로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 먼저 '120바로콜센터' 앱을 내려 받은 후 Foreigner(외국어) 화면을 터치하면 원하는 언어 상담원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모바일웹(m-120.busan.go.kr)를 통해 외국어 상담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120바로콜센터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상담원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 통합민원담당관은 "부산에 거주하거나 관광하는 외국인은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고 부산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부산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맷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부산의 산책길인 갈맷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시민 모임이 결성됐다.

(사)갈맷길유네스코등재추진봉사단(갈맷길 봉사단)은 부산기장군 장안읍 대룡마을에서 갈맷길 유네스코 등재연구소가 발족했다.

갈맷길 봉사단은 전국 각지의 산악회와 부·울·경 지역 협동조합 운영단 등 300명의 회원이 모인 단체로, 지난해 갈맷길 봉사단을 결성해 갈맷길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뜻을 모았다.

봉사단회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갈맷길 환경 정화 작업이나 갈맷길 곳곳에 숨은 천혜의 경관과 음식점 등을 발굴했다. 갈맷길 유네스코 등재연구소가 발족하면 사적 모임 성격의 봉사단이 '갈맷길 유네스코 등재 추진본부'라는 사단법인으로 격상한다.

갈맷길 유네스코 등재연구소는 기장군 대룡마을에서 예술·철학 활동을 하는 바투아트 협동조합이 맡는다.

바투아트 협동조합은 현재 기장군 장안읍 일대 6개 마을을 예술 마을로 꾸미는 작업을 하는 예술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 갈맷길의 역사·미적 경관·문화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갈맷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연구하게 된다.

갈맷길 유네스코 등재연구소장을 맡게 될 바투아트 협동조합은 "세계유산의 개념이 역사 예술 과학 개념에서 자연과 인간의 복합 개념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갈맷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낙동강 철새 도래지와 천혜의 바다 경관 등은 부산만이 가진 독특한 자연경관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전쟁의 역사를 지닌 국제시장이나 6500만 년 전의 울트라 사우르스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된 이기대는 인류의 역사를 넘어 지구의 역사까지 간직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갈맷길 유네스코 등재 추진 본부는 올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거쳐 2020년 갈맷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선통신사 평화의 길 따라 한·일 재조명 교류전 개최

오사카 역사박물관 컬렉션 등 조선통신사 생생한 모습 담아



'조선통신사사래조도' 고베시립박물관 소장

이번 전시는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띠는 조선시대의 통신사(1607년~1811년, 12회 파견)를 중심으로 사행의 출발지 부산에서의 여정과 부산의 일본인 마을 왜관을 통신사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조명했다.

오사카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일본 공·사립박물관 6개 차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16개 국·공·사립 박물관의 귀중한 유물 110여 점이 출품되며 지난 30여 년간 부산시립박물관이 중점적으로 수집했던 통신사 관련 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오사카역사박물관 신기수컬렉션의 '조선통신사어뉴선도병풍'과 '조선통신사소동도', '천화도조선통신사행렬도'이다. 또한 통신사가 국서봉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고베시립박물관의 '조선통신사래조도'도 주목되는 자료다.

부산시립박물관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400년 평화의 사절단 통신사를 재조명하고 양국의 발전된 미래상을 기원하는 2015년 국제교류전 '조선시대 통신사와 부산'을 지난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산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밖에도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간 외교 문서인 '조선통신사서계'와 '대마도주서계'를 비롯한 한글문화 교류의 직접적 자료가 되는 '의외양 필 산수도', '계마통신사시교' 등도 함께 출품된다.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한일 문화외교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내년 3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된다.

강남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한국학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부경대 미래관 소민홀에서 부산시와 나가사키현 공동주최로 열린 '조선통신사~부산과 쓰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세미나' 기초강연에서 "2016년 3월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오는 12월 초 부산에서 제9차 한일공동대표자 학술회의를 열고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중순 후쿠오카에서 등재 신청을 위한 상호 조인식 실무협의를 연 뒤 1월 30일 쓰시마에서 제3회 한일공동주

진위원회를 열고 신청서 조인식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일추진위원회에서 신청 준비중인 기록물도 소개했다. 우리 측 기록물 가운데 국가기관 기록물에는 변형집모 증정교린 등 3건, 여정 기록물에는 해행총재 등 50건, 문화교류 기록물에는 시 서화 기록화등 18건이 포함된다. 여기에 일본 측 국가기관 기록물 5건, 여정기록물 28건, 문화교류기록물 18건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적크루즈 모항 선석마련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개장한 부산항국제여객 새 터미널 13, 14번 선석을 국적오항크루즈선 부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13번 선석은 부산~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팬스타 라인닷컴주의 팬스타드림호가 지정받아 사용한 부두이고, 14번 선석은 카페리선의 예비부두이다.

그러나 최근 팬스타드림호가 화물적재의 불편을 이유로 부산~일본 하카타를 잇는 고려해라주의 뉴카멜리아호와 같은 12번 선석을 쓰면서 13, 14번 선석이 비게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에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선이 계획대로 취항하면 이 곳 선석을 국적 크루즈선을 중심으로 한 8만급 이하의 크루즈선 부두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공사측은 13, 14번 선석을 크루즈선 부두로 활용하기에 앞서 부두 앞 수심을 고르게 하는 준설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팬스타그룹은 7만급(승객 정원 2천500여 명) 국적 크루즈선의 내년 취항을 목표로 중고크루즈선을 매입 하려고 외국 크루즈선사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올 연말까지 국적 크루즈 법인을 설립한 뒤 내년 국적 크루즈선을 취항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초 크루즈선 부두로 조성한 1번 선석은 CIO 검색장과멀리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뒤따르지만 13, 14번 선석은 터미널 청사와 가까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일본 주요 크루즈선사, 크루즈 전문여행사, 관광설명회 개최

부산시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제주도,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 등 국내 4대 크루즈 기항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크루즈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주요 크루즈선사,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루즈관광 설명회나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자체별 기항지 관광설명회를 통해 국내 5대 도시의 크루즈항만과 관광지를 소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일본 내 크루즈 선사 및 크루즈전문 여행사 간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크루즈 관계자와 일본 크루

즈 관계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16년에 정기운항이 예정되어 있는 코스타빅토리아호의 정기항로에 속한 일본 4개 항만 도시(후쿠오카시, 이시카와현, 교토부, 돗토리현)도 함께 참석했다.

또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와 일본 4개 항만도시는 지역 협력을 위해 부산과 일본 4개 항만도시간 협의체 구성 등 한·일 크루즈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크루즈 승객이 부산을 찾아오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해외 안전여행지도 'Safe T-Map' 출시 해외여행 떠날 땐 가볍게 챙기세요



한국관광공사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시 간편한 안전정보 확인 및 오프라인 지도서비스가 가능한 해외 안전여행 지도 'Safe T-Map'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2014년 국민 해외여행객은 1,600만명을 돌파하며 해외여행은 우리 국민의 보편화된 여가생활이 되었으나, 해외 사건·사고 또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사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해외 지역의 안전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Safe T-Map'을 개발하였다. 'Safe T-Map'은 여행출발 전 도시지

도를 미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현지에서는 데이터 소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대한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안전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 사고 및 주의지역, 근접시 위험지역 알림서비스, 방위지역 위급 상황 시 간편한 연락이 가능한 긴급콜서비스, 지역별 안전여행을 위한 여행 유의사항 등의 기능이 담겨있다. 해외여행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유명 명소 및 식당 등의 콘텐트 및 간단한 길안내, 자기 위치 정보 등의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

현재 출시 버전은 세계 유명 관광도시 총 20곳을 선정하여 약5,800개의 관광정보를 담았으며, 향후 40개의 도시(지역)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각 국의 해외공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콘텐트를 확충하여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Safe T-Map' 제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주관한 2012년 제1회 창조관광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업체로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지도 서비스가 가능한 주다비오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 정책 추진에 부응하였다.

국민해외여행센터장은 "국제 정세 및 일부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며, "Safe T-Map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는 창조관광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전망대 내년 4월까지 연장 개방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최고층이 내년 4월까지 임시 개방된다. 16일 BIFC 물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BIFC 자산관리회사 부산파이낸스센터 AMC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총 20회 BIFC 63층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지난해 4월 처음 개방한 BIFC 63층은 메르스 사태로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총 101회 시민들을 맞았다. 그동안 하루 평균 2천 명 이상, 총 2만 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광안대교와 부산항, 부산시민공원, 금

정산 등 부산 사방을 다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었다.

BIFC 물 운영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전달했다. 임시 개방을 넘어서서 상시 개방이나 야간 개방으로 부산관광자원으로 활용돼 줄것을 요청했다.

BIFC 최고층은 분양을 위해 내놓은 상태지만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계속 비어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를 부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는 목소리가 크다.

하늘에는 불꽃, 땅에는 그리움

지난달 광안리 해수욕장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불꽃보다 뜨겁고, 불꽃보다 화려하고, 불꽃보다 영롱한 사랑의 등불이 켜졌다

제11회 부산불꽃축제가 지난달 24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막을 내렸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입니다'를 주제로 한 시간동안 진행된 불꽃축제는 인간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을 화려하고 영롱한 불꽃에 담아낸 한 편의 완벽한 사랑의 드라마였다.

오후 8시 정각, 카운터 소리에 맞춰 한 개의 점이 캄캄한 밤하늘로 올라갔다. 첫 불꽃이었다. 잠시 후 1호 불꽃은 오색 찬란한 빛의 줄기를 토해 냈다. 붉고, 푸르고, 노랑고, 황홀한 오색 꽃잎들이 활짝 펼쳐졌다. 가을 밤하늘에 꽃너울들이 번져나갔다. 백사장엔 온집한 130만 인파는 탄식을 터뜨렸다. 불꽃 하나가 창공을 가를 때마다 부산 밤바다를 끼얹게 메운 사람들의 가슴에는 불꽃보다 뜨겁고, 불꽃보다 화려하고, 불꽃보다 영롱한 사랑의 등불이 켜졌다.

이번 불꽃축제는 사랑의 시작과 결실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주었다. 축제 주제에 적합한 사랑의 스토리를 가수 양희은 씨의 나레이션으로 들려주며, 분위기를 들었다. 백만 군중은 나레이션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로, 창공으로,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뜨거운 사랑을 백사장에서 지켜보았다. 부산이 연출한 최고의 사랑의 드라마가 이날 펼쳐진 것이다.

올해 불꽃축제는 여러 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해까지 한 시간동안 불꽃쇼를 보여주던 것을 올해는 제1부 해의 초청 불꽃 15분, 제2부 부산얼티미불꽃쇼 35분으로 나눠 차별화된 불꽃을 보여주었다. 해외 초청 불꽃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불꽃 연출회사인 타마야사가 참가했다. 또한 제1부와 제2부사이 휴식시간 3분 동안 일본 대마도 해상에서도 불꽃축제를 축하하는 불꽃쇼를 펼쳐 다채로움을 더했다.



올들어 9월말까지 부산 찾은 외국인 관광객, 전년동기보다 14% 줄어



외국인 방문객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불어닥친 메르스 확산 충격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치명타를 안겼다. 실제 메르스 공포가 절정이던 지난 6월부터 8월 까지 석달간 부산의 외국인 방문객 실적은 전년보다 36.2% 감소했다.

당시 전국적인 감소율 40%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었지만, 9월 감소율은 6.3%로 전국(3.1%)의 두배에 머무는 등 회복세가

부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집계한 올들어 9월말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148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나 줄어든 숫자다. 한류 바람으로 급증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감소한 37만 5천명에 그쳤고, 의료관광의 큰손인 러시아인도 3만3천명으로 15%줄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내관광 수요가 얼어붙었던 지난해에도

오히려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년간 부산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227만 7천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전례없는 두자릿수 역성장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 방문 외국인 수를 당초 301만 6천 명으로 집계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충집계된 외국인 선원과 타지역을 여행 목적으로 부산을 단순 경유한 사례를 제외하는 등 통계 기준을 바꿔 지난해 전체 227만 7천명, 올해 9월 말 현재 148만 8천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해운대 빛축제, 파도 · 별빛 형상화하는 조명 곳곳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6m 초대형 트리 설치

올해 두 번째로 해운대 빛축제가 개최된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시장, 애항길, 해운대구청에서 '제2회 해운대라고 빛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해운대(바다, 구름 그리고 별) 빛나는 나의 행성'이라는 주제로 내년 2월 29일까지 해운대 밤을 환하게 비춘다. 축제 첫날인 12월 1일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는 높이 16m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된다. 또 해운대의 특성을 살려 역동적인 파도와 반짝이는 별빛을 형상화한 조명들이 해운대 밤거리를 수놓는다. 구청은 구남로에 '스타 보틀'이라는 대형 병을 설치,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때부터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걸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참가 시민들은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에는 구청 열린 정원에서 연인들의

사연 소개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고백할래요'가 개최된다. 특히 이 행사는 해운대시장 상인 방송국 DJ가 생방송으로 중계해 흥을 돋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 31일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 열리는 '열광 페스티벌'은 레이저 퍼포먼스와 댄스공연 등의 볼거리도 제공한다. 야광 페이스페인팅, 새해 운세를 봐주는 타로점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된 기업 협찬 포토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해운대 빛축제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구청의 열린 정원, 해수욕장 내 스케이트장 등과 함께 겨울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대 일대가 4개월 휴양·레저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분주한 삶의 심표를 잠시 내려 놓고 길 위에 선다 애뜻하고 진지한 삶의 궤적을 찾아서...



한해가 끝날 즈음이면 언제나 같은 물음을 던진다. 올해는 무엇을 했느냐고, 부처님경전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이라는 구절이 있다.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는 것은 도인(道人)의 경지다. 우리 같은 범인(凡人)의 삶은 다만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 얼마나 기쁨 쓰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좋은 삶의 정도, 행복의 양이 결정되리라. 그래서 한 해 한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것이 좋은 삶이자 잘 사는 삶인 것이다. 분주한 삶의 심표를 잠시 내려 놓고 길 위에 선다. 애뜻하고 진지한 삶의 궤적을 찾아서 동해로 발길을 돌린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에 위치한 두타산의 고도는 해발 1,353m이다.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웅장하지만 가까이 다가 갈수록 섬세한 산세다. 산 이름 두타(兜陀)는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佛道)를 닦는다는 뜻이다. 심오한 의미를 지닌 두타산 자락 맞은편에 고즈넉한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 642년 자장암사가 처음 터를 다진 삼화사다. 흑련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삼화사는 864년 범일국사에 의해 상공암이라 불렀고 고려 태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지금의 삼화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삼화사에 도착했을 때는 짙어진 해가 산 뒤로 몸을 숨긴 뒤였다. 날은 아직 어둡지 않았지만 경내에는 그들이 드리워져 있었고 산을 넘어온 바람은 초겨울의 일사함을 풍고 있었다. 그해 산사에는 어둠이 깔렸고 스님께서 법고와 목어, 운판을 친 후 침가자들이 범종울 타중하기 시작했다.

세상 일 뒤로 한체 훌훌떠나

“스님이 입는 장삼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가난한 절도 있고 조금 넉넉한 절도 있습니다. 스님에게는 모두 소임이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실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님은 재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장삼뿐만 아니라 망자의 수의에도 주머니는 없다.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떠나는 망자의 깨달음을 스님은 살아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님께서 몇 번이나 우러낸 차가 빈 찻잔을 채우는 동안 밤은 점점 깊어 갔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부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기도를 당부했다.

“인간 삶은 침로(침로) 짧습니다. 즐겁고 감사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여음이 더운 것은 당연한 일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니 덩 되고 팔딱팔딱 튀는 것이고 겨울 역시 추운 것이 당연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니 춥다고 난리입니다. 현실을 받아 들이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에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지요. 그중에서도 '지금'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가는 것도 슬퍼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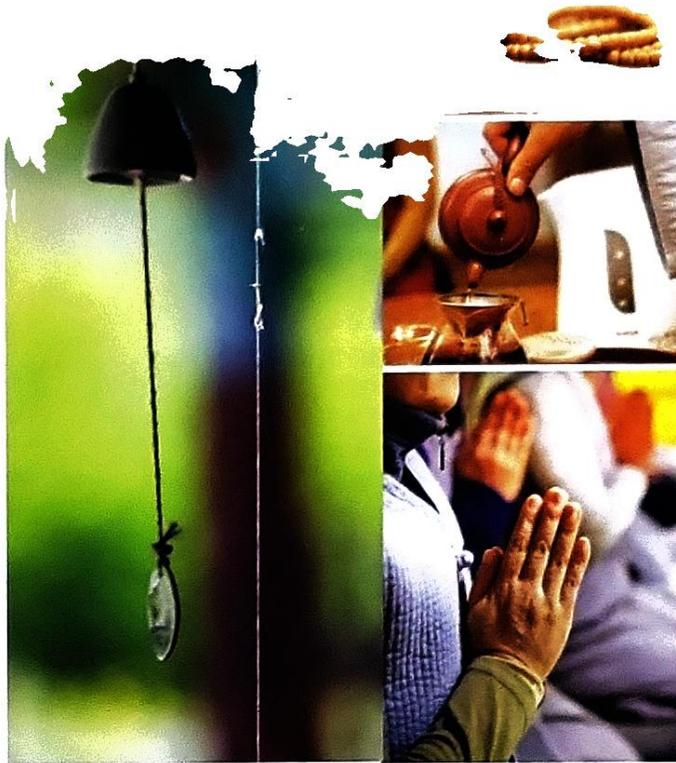
귀한 말씀을 남기고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나 내일 아침 비가 올 텐데……. 일출명상은 어찌나?”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오락가락하네요.”

“일기예보를 뭐 하러 봐 내 무릎이 부서는데.”

스님은 미지근하게 농담을 잊지 않았다.



태양은 침묵하며 떠오른다. 호들갑스럽게 아침해를 맞이하기 보다는 지긋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튿날, 새벽예불이 끝난 후 추암바닷가로 향했다. 란관스님의 크를 예언처럼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일출명상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날씨였다. 삼화사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인 추암은 동해의 해금강으로 불리는 곳이다. 맑은 물과 깨끗한 백사장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바위가 어우러진 풍경은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특히 길게 선 촛대바위(애국가 부를 때 나온다) 뒤로 떠오르는 일출은 동해안 최고 비경이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야 했지만 아쉽게도 굳은 날씨 때문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은 아니더라도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여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루의 시작을 일리는 신비로운 빛은 길게 각인됐다.

아침공양을 마친 후에는 포행시간이다. 삼화사는 무려 4km에 달하는 무릉계곡을 끼고 있다. 학소대, 옥류동, 관음폭포, 선녀탕, 쌍곡포, 용추폭포 등을 품고 있는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거대한 협곡이다. 고려시대 동안거사 이승휴가 이곳에 머물며 (제왕운기)를 저술했다고 전하며, 약 4958m에 달하는 무릉반석에는 조선 전기 4대 명필 중 한 분인 불래 양사언의 석각과 매월당 김시습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이 때문에 계곡 곳곳에서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쌀쌀한 아침 기운이 머물고 있는 숲길을 걸었다. 운동이 아니라 명상이 목적인 포행은 자신의 걸음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야 한다. 걸음을 옮기며 숲의 기운을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생각의 중심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렇게 포행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학소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 전 학이 등지를 틀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학소대는 너럭바위와 웅장한 암벽, 폭포가 어우러진 명승지다. 적당한 장소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들어갔다. 침묵이 이어지며 폭포 소리와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듯하더니 명상이 집중할수록 자연의 소리마저도 침묵하듯 고요해진다. 휘날려 빛을 띠는 해가 높은 산 뒤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차가운 내기는 조금씩 따듯함을 더해갔다.

숲과 계곡과 바람은 물론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까지 몸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상은 머지않아 가는 해와 오는 해를 기념한다면 떠들썩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부산 '산만디로 떠나는 시간여행' 많은 관광객 참여

부산관광협회, 한국관광사 동남권 협력지사, 공동마련

부산 관광주간을 맞아 지난 11월 1일까지 진행된 산복도로 특별프로그램에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등 부산의 숨은 관광명소 산복도로 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산만디로 떠나는 시간 여행'과 '산만디 런닝맨' 등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주간 특별프로그램에 당초 목표치의 2배인 1만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직접 참여했고, 유료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도 9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참여자 중 62%가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관광객들로 집계돼, 부산의 숨은 관광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광주간 특별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 부산관광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산만디(산비탈)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부산 대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함께 과거 부산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직접 보아줌으로써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산복도로 투어 프로그램이다.

부산역에서 하루 3대의 차량으로 당일코스과 빈일코스로 나눠 운영했는데, 투어참가 신청이 초기에 마감돼 이틀간 발길을 돌린 관광객도 많았다.

'산만디 런닝맨'은 산복도로 곳곳에 숨은 명소를 찾아내는 관광객 체험이벤트로, 총 100여 명이 참가해 감천문화마을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부산지역 식당 등지에서 최고 50%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관광주간 동안 부산역 광장에 설치한 부산관광 홍보 부스에 외국인 관광객 4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6천여 명이 찾았고, 부산 관광 명소를 맞추는 퀴즈 이벤트와 SNS 홍보 이벤트에도 각각 1천2백여 명과 3천4백여 명이 참여했다.

감천문화마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스마트 마을로 탈바꿈

부산에 시민 주도 전국 첫 스마트 마을이 생긴다. 대상 지역은 감천문화마을로 부산시는 최근 감천문화마을을 시민 참여형 스마트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리며 해마다 수많은 내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안전, 복지, 교통, 관광, 시민편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2월 사업공고 및 개발착수,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시범 서비스 개시 절차라는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다. 특히 감천 스마트마을 구축 과정을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 조성하고 연계해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활성화 등의 복안이다.

부산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서비스개발 및 구축-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과정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조성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국비 지원 등을 통해 3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 ICT융합과장은 "감천은 환경 개선 사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이라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이뤄낸 마을에 시민 주도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마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감천문화마을에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한 후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마을 2~3곳을 추가로 선정해 스마트 마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천문화마을 빈집 리모델링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되살려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 될 듯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감천문화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빈집들을 명품 건축물로 리모델링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최근 완공했다.

부산광역시와 사하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감천문화마을에 방치돼 있는 빈집 6채를 활용, 이색적인 문화예술촌으로 꾸미는 '빈집 레지던시' 사업을 벌여 개관식을 갖었다.

'레지던시(Residency)'는 화가·작가·음악가 등이 상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며 방문객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는 세계적 건축가 4명이 설계를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감천문화마을 빈집을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되살린 '빈집 레지던시'가 최근 완공했다.사진은 송효상 작품 '독락의탑'

많은 것이 특징. 건축 거장들은 각기 독특한 예술공간 4곳을 탄생시켰다.

'빈집의 미학'으로 잘 알려진 부산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송효상 이호재 대표의 '독락의 탑'을 비롯해 조성용 도시건축 대표의 '별계단집', 김인철 아키움 대표의 '색즉시공', 프란시스코 사닌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의 '공공의 방'이다. 감천문화마을의 빈집 레지던시는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참여로 사업 초기부터 화제가 됐으며, 그들의 명성만으로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와 사하구는 최근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에 입주할 예술가들을 모집,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재공하

고 시민·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객 위해 내년 3월부터 산복도로 민박촌 운영

동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산복도로 일대에서 첫 민박촌조성사업에 들어갔다.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도시민박촌'은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도시민박촌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초략6동의 유풍정 일대에 조성된다. 총 25억 원을 투입해 인근 빈집 50여 곳을 매입했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민박촌은 유봉정(158㎡), 팬션형·도미토리형의 숙박동(262㎡), 아트팩토리(68㎡), 체코인센터(59㎡)로 구성됐다.

그동안 산복도로는 부산 근대사의 보고이자 아름다운 조망으로 손꼽히는 관광자원이었지만, 내국인 대상 민박업이 불가능한 관광진흥법 때문에 숙박이 포함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민박촌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동구는 도시민박촌 운영에 주민을 참여시켜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의 선순환 구조도 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지역 노인들은 도시민박의 관광도우미로 민박촌과 연계한 관광 코스 안내를 맡을 예정이다.

초략 주민협의회가 주축이 돼 운영을 담당하며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와 한국해양대학교·한국리모델링협회 등에서 지원에 나선다.

동구청장 관계자는 "도시민박촌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불러모아 부산과 산복도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비치 국제 아이스링크장' 조성



다대포해수욕장 한가운데에 빙상장과 빙매장이 들어선다. (사진:해운대구청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바다를 보며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해변 스케이트장을 민자로 추진 조성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

식명칭은 '해운대비치 국제 아이스링크'다. 피겨스케이팅이 가능한 국제 규격 가로 30m 세로 61m의 이 야외 스케이트장은 해운대해수욕장 중앙의 임해행정봉사실 인근에 설치된다. 옛 날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가로 30m 세로 30m 규모의 썰매장도 함께 들어선다.

구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1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따라서 개장식 공연을 빛내줄 국가대표 유명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초청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휴무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이곳의 입장료(예상금액)는 어른 기준 1만 2000원이다. 아이스링크 하루 이용권이 6000원이고, 장비 대여비 6000원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구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고 2년간 아이스링크 운영권을 가진다.

자갈치 연안 친수공간 '유라리 광장' 완공

650m해안산책로...영도대교 도개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관광명소

부산 자갈치시장 연안이 해안 산책로를 갖춘 친수공간으로 변신했다. 부산 중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65억 원을 들여 남포동 건너물시장부터 영도대교까지 280m구간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2차 사업'을 추진, 최근 완공했다. 이에 앞서 남포동 신동아시장부터 건너물시장까지 370m구간 연안정비1차 사업을 지난 2012년 준공했다.

이를 통해 남포동 신동아시장~건너물시장~영도대교를 잇는 자갈치 주변 연안이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기고 영도대교 도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났다. 이곳은 폭이 최대 20m에 이르는 해상산책로의 나무데크, 벤치 등을 갖췄다.

'유라리'는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이 만나 즐긴다는 뜻이다.

중구는 '유라리 광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표지석도 세울 계획이다.



부산 자갈치시장 연안이 해안산책로를 갖춘 친수공간인 '유라리 광장'으로 거듭났대사진은 나무데크와 벤치 등을 갖춘 '유라리 광장' 모습)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될 바다미술제 작품 '소변 보는 강아지' 등 영구 전시키로

지난달 18일 막을 내린 2015 바다미술제의 작품 중 3점이 다대포해수욕장에 계속 남아 시민들과 만나게 된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는 최근 한국 손현욱 작가의 '배변의 기술', 헝가리 조셉 타스나디 작가의 '기억의 지속', 네덜란드 코넬 알베르투스 오우웬스 작가의 '바다의 메아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영구 설치될 이들 작품은 다대포해수욕장의 공간 특성을 고스란히 녹여낸 작품들로 손현욱 작가의 '배변의 기술'은 소변을 보는 강아지를 대형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바다미술제 기간 '포토존'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해변 및 수중에 설치, 다대포의 절경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조셉 타스나디의 '기억의 지속'과 코넬 알베르투스 오우웬스의 '바다의 메아리'는 다대포해변공원과 해수천에 각각 설치되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

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는 "세 작품이 다대포해수욕장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구전시하게 될 배변의 기술

낙동강 하구 찾아온 철새들

사하구 을숙도·강서구 명지갯벌 등지에 겨울철새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철새가 찾아오고 있다. 사하구 을숙도 남단. 넓게 펼쳐진 사주(모래 언덕) 주위로 새 떼가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망원경으로 살펴본 새들은 청둥오리·고니·마도요 등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철새다. 이곳에서만 오리와, 마도요 1200마리가량이 발견됐다. 강서 명지갯벌로 이동하자 더 많은 새 떼가 보였다. 얼추 청둥오리 3000마리, 고니 1200마리 가량으로 파악됐다. 사하구 다대포에서 바라본 백합등(사주) 인근에도 고니떼가 있었다. 부산환경재단연합은 "십수 년째 이곳 일대의 방문 추이

을 살펴보니, 올해는 이들의 방문이 유독 이르다"며 "원래 겨울 철새가 10월 말부터 찾아오긴 하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장 많이 찾는다. 지금 개체 수는 지난해보다 10배가량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동강하구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고니·청둥오리·기마우지 등은 몽골과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려 11월께 방문한다. 그 이후 4월께 번식을 위해 되돌아간다. 낙동강 하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류 개체수는 지난해 기준 37만 마리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전통문화체험관광



산성도에란-도자기 체험

도자기 기초 코일링기법 성형체험
 - 전통복물에 전통기미를 이용한 고풍적 체험
 - 전시사적품감상, 차와 함께 직기와외 대화가능(2만원)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 있는 산성도에는 전통기마에 분청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도예전문 공방이다.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 051)517-8376



금정산성 막걸리빛기체험

금정산성마을은 예부터 산성누룩과 막걸리가 유명하다. 직접 누룩과 고두밥을 이용해서 전통 막걸리를 빚어보는 산성막걸리빛기체험. 체험가능기간은 인종 가능하고 마을정보센터를 찾으면 된다. 2시간여에 걸쳐 막걸리를 빚게 되는데 이 체험에는 간편한 옷차림과 편안신발, 카메라 등을 가져오면 더욱 좋다.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 051)518-0014



민속마당

민속마당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고 한국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상의 열이 담긴 한국적 불거리의 줄길거리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앞세워 국가기간산업과 현대적인 많은 분야의 부산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전통적인 민속음률과 민속놀이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
 부산시 금정구 두실로 / 1588-8563



장안요 도자기체험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14번 국도를 따라 가다 장안사(長安寺)로 들어가는 길로 빠져 조금만 가다 보면 길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하장안(下長安)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온다. 이곳에 전통 장작기마로 그릇을 굽는 장안요(長安窯)가 있는데, 이 장안요는 원로 도예가인故산정희 선생님의 아들이기도 한 신경꾼씨가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 051)727-8216



충렬사 전통혼례

전통혼례로 이루어지는 충렬사 야외 예식은 충렬사 정문 앞에 있는 충렬당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 숨결을 직접 체험하면서 특별 한 예식을 거행고 싶은 신랑 신부에게 인기 있는 결혼식 장소이다. 충렬사의 전통혼례는 우리 고유의 미용양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김소현 혼례 문화의 정착을 도모키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051)523-1630



금정산성 도자기 체험

사람의 얼굴이 그릇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흙 냄새가 난다. '이번 주말에는 뭘 할까?' 독서나 영화감상도 좋지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도자기체험을 해보는건 어떨까. 과일접시, 화보, 비누받침 등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 도자기의 종류는 많다.
 부산시 금정구 / 051)518-0014



소름요-도자기체험

신라 토성과 왜성 사이 구름에 위치한 소름요는 운산도의 우배지였던 황학대와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국수당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죽성리 최고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흙을 집힐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소름요는 자연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 가는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 051)722-0018



수경요 도자기체험

부산 금강공원 식물원 근처 장천중학교 옆에 있는 도예공방이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면서 한국적인 미의 새로운 창조를 추구하는 곳으로 아늑함을 담은 그릇 화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공방이다. 2006년도 부산미술대전에서 수경요 대표 전수걸 작가는 공예부문에서 '혁신원류' 작품으로 대상을 차지하여 공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부산시 금정구 금성로 / 051)583-1990



문화요리학원-김치 담그기, 다시마/미역요리 체험 등

부산시 서면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요리학원은 1988년도에 설립되어 25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맛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원으로써 우리의 음식을 국내 및 세계에 알리며, 패백이바치 가정요리, 반가우리 등 각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성심성의로 지도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 서천로 / 051)804-1124



금강사 다도체험

이른살명 차 달이는 법 및 마시는 예술 시범 차시를 차밭체험장(농사)에 따라 차 잎따기, 차 잎 말리기 등, 3원한 예약, 5원 이상(당당도 차장)에 따라 가능하므로 전화로 사전문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051)555-1383



도동서원을 관람한 일행은 달성군이 준비한 강원도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자리잡은 120만평 규모의 자연휴양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숙소 포레스트 12에 도착했다.

경북 달성 풍광 다 누린 1박2일 힐링여행

천향 허브농장-사문진 나루터, 주막촌-도동서원-포레스트12-낙동서원-허브힐즈-마비정 벽화마을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소중한 추억하나쯤 갖기 위해 부산지역 여행사 대표들과 이번 여행을 직접 기획한 골든드림투어 박민 수회장을 비롯, 부산 시관광협회(회장:이태섭) 차민건 회장이 함께 탑승, 1박2일(26~27일)간 달콤한 대구 달성지역 팸투어에 나섰다. 부산역을 출발한 버스가 2시간 여를 달려 자연의 소중함과 지킴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체험을 하기위해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천향 허브농장에 도착했다.

천향허브 농장 _ 이곳은 가족과 함께 허브를 체험하는 곳으로 로즈마리, 자스민, 라벤더 등 80여 허브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허브심기 체험, 허브차 만들기, 허브비누 만들기, 허브화장품 만들기, 허브염색체험, 허브로 요리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체험을 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낙동강의 대표적인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_ 사문진나루터는 조선 세종 28년에 설치돼 성종 때까지 40년간 무역창고(화원창)지로 활용되었으며, 이곳에는 대일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왜물고가 있었다. 사문진은 과거 경상도 관아와 대구지역 일원에 낙동강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물산을 공급하고 이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물산운송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옛날 보부상들이 부산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대구로 오는 뱃길로 이용했다.

사문진 _ 주막촌에서는 막걸리를 비롯해 잔치국수, 국밥, 부추전, 두부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어 옛 정취와 함께 사문진 낙조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달성 10경에 사문진 낙조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낙동강 노을 경치를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사문진 주막촌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그늘막 및 분수 등을 추가 설치하고 세족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돼지고기 삶과 막걸리가 일품

달성 도동서원(서지 제488호)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서당, 담장 _ 도학의 창시자인 한철당 김광필 선생(조선 오현 중 수현)을 배향한 서원으로 우리나라 5대 서원으로 불리는 곳이다. 아름다운 담장으로 전국 최초로 담장이 보물로 지정된 곳으로 400년 된 은행나무와 서원 옆을 흐르는 낙동강의 풍경은 옛 선비정신과 함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한다. 뒷산인 대니산에는 패리클라이딩 이륙장과 MTB코스기가 조성되어 있다.



포레스트 12 _ 나무와 물·돌·바람·햇살을 느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숨쉬는 에코힐링 체험 및 학습, 예술 및 문화·휴양의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세계적 12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과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며 숨쉬는 참된의미를 숲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밤에는 온통 LED불빛이 불야성을 이룬다.

낙동서원과 달성한일우호관 _ 이튿날 가창면 우럭리에 자리잡고 있는 한·일 우호의 광장 낙동서원을 찾았다. 김충선 장군의 위패를 봉안하여 춘추春秋로 제향祭享하는 낙동서원은 충절보국忠節報國의 삶을 산 김충선 장군의 위업을 기려 영조 말년부터 삼도유림이 한뜻으로 합심하고 정조 13년(1789)에 다시 유림들이 공을 모아 간하여 정조 18년(1794)에 준공 봉안하였으나 고종 원년(1864)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고 말았다. 그러다 고종 22년(1885)에 영남 유림과 김씨 문중이 합심하여 재건하였으며, 1971년 국고의 지원을 받아 현 위치로 옮겨 오게 되었다. 현재 낙동서원에는 낙동사禮亭과 송의당宗義堂 및 향양문海陽門, 장군의 이력과 공훈 등을 새긴 유적비遺蹟碑와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낙동서원 옆에 자리한 달성한일우호관은 한·일 역사 전통의상 및 생활양식 체험관, 3D영상실, 예절교실 등 한·일 문화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허브향 가득한 숲속여행 힐크레스트 _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힐크레스트는 테마별로 구성된 허브정원과 체험형 동물원 쥬쥬랜드, 에코어드벤처 타잔힐즈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에코 테마파크이다. 입구부터 코골을 자극하는 허브향기와 드높은 메타세콰이아로, 수백 종의 허브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허브 정원이 숲 속에 펼쳐져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 체험시설, 놀이시설, 옛 농기구를 전시하는 농경민속관이 자리해 있다.

마비정 벽화마을 _ 마지막으로 들린곳은 마비정 벽화마을, 대구수목원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9대 밖에 오지 않는 산간 오지에 1960~70년대의 농촌의 풍경을 산골마을담장에 담았다. 국내 유일의 연리목+연리지 사랑나무와 국내 최고령 옷나무, 대나무 터널길, 이팝나무 터널길 등 자연과 호흡하며 벽화마을을 감상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농촌체험은 만들기 체험떡, 두부, 전통호소사, 말솃대, 향낭, 천연염색, 천연비누, 대나무 문경, 전통제기 등) 농작물 수확, 전통민속체험(무로), 외가집 민박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가볼만한 곳으로는 울창한 숲 낙동강변 화원등산, 세월의 흔적이 곱게 느껴지는 인홍마을, 사육신의 충절을 간직하고 있는 모곡마을 육신사, 세계가 아름다운 비슬산 등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관광지가 있다. 달성군은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며 군민들이 책과 문화, 예술의 향유와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행 인문학이 달성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dl.jusan@hanmail.net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8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82